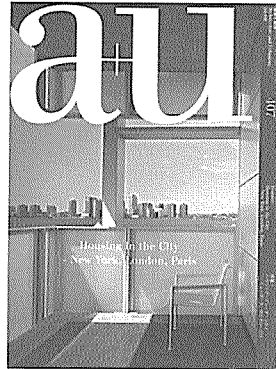


a+u
2004년 8월

이번 호의 특집은 뉴욕과 런던 그리고 파리 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합주거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것이



다(Housing in the City-New York, London, Paris). 각기 다른 성격의 도시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지만 각 도시의 경향이나 특징을 파악하기보다는 '오늘날의 도심과 교외의 집합주거'라는 다소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더 용이할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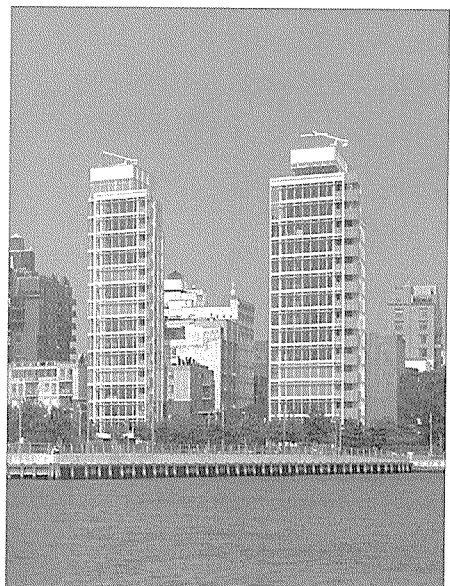
■ 특집 : 도시속의 집합주거-뉴욕, 런던, 파리

뉴욕에선 리처드 마이어에 설계된 페리스트리트 아파트를 포함하여 4개, 런던에서는 리처드 로저스의 에세이와 그가 설계한 몬테비트로를 포함하여 근작 3개(한 곳은 런던이 아니라 베딩턴의 프로젝트이다), 파리에서는 파리좌안지구에 완성된 5개의 아파트먼트와 이 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의 에세이가 게재되었다. 이들 집합주택의 공통점은 대부분 공장 등의 이전 적지에 대한 재개발이거나 기존 주거 및 타 용도 건물에 대한 증, 개축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재개발 지구는 주변 지구와 증개축 건물은 기존 건물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동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어야 하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173/176 페리스트리트 아파트(1999-2003)와 찰스 스트리트 아파트(2003-2005)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최초의 트윈 타워형 복합 주거는 맨하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리스트리트 상공에서 허드슨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16층 높이의 타워는 동서를 연결하는 페리스트리트와 웨스트 스트리트의 복단이 만나는 코너에 서 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투명하고 미니멀한 형태의 건물이 추가되면서 더욱 인상적인 것이 되었다. 건물은 복층유리와 세도우 박스가 붙은 백색의 메탈패널로 이루어진 커튼월로 피복되었다. 허드슨강과 맨하탄 그리고 뉴저지의 강변이 펼쳐지는 파노라믹 뷰는 이 아파트의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이다. 거주자는 페리스트리트측에서 건물에 진입하여 현관을 지나 로비를 통과해 가게 된다. 아파트의 주호 하나가 한 층을 점하고 있으며, 각각의 면적은 북동(北棟)에 해당하는 페리스트리트173에서 약 167.2㎡, 남동에 해당하는 페리스트리트176에서 약 348.4㎡이다. 커다란 개폐식 창은 바닥 플레이트에 고정된 유리 커튼월 속에 묻혀 배치되었다. 각 건물의 후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코어가 돌출되어 있다. 플로어 전체에서 페리미터 난방을 함으로써 유리커튼월의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페리스트리트에 면한 두 동의 집합주택과 나란히 찰스 스트리트에 면한 아파트먼트가 세워진다. 2005년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도 찰스 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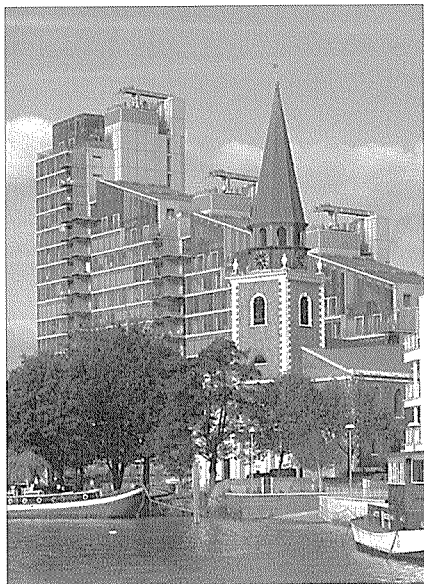


페리스트리트 아파트(1999-2003)와 찰스 스트리트 아파트(2003-2005)

의 것과 마찬가지로 백색 메탈패널 및 유리로 된 커튼월을 사용하여 결정체와 같은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 2층과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곤 1개 층에 2주호씩 들어가는 찰스스트리트의 아파트는 거주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로프트스페이스를 가진 페리스트리트의 아파트먼트와는 달리 모든 것이 건축사에 의해 짜여져 있다.

런던-리처드 로저스의 몬테비트로 주택재개발 프로젝트(1994-2000)

몬테비트로 주택재개발 프로젝트는 첼시(Chelsea)의 체이니 워크(Cheyne Walk)를 내려다보는 템즈강의 남측 배터시 리치(Battersea Reach)에 계획되었다. 부지는 20세기 초두에 건설된 제분소의 이적지로서 이 제분소는 1980년대에 폐쇄되었다. 주변 환경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동쪽에는 테라스하우스나 빌라보다 더 오래된 1960년대의 고층 주택이 남아 있고, 서측에는 18세기 건축물의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성 매리 교회가 있다. 리처드 로저스 파트너십은 이 인상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데 있어 강변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경관에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성 매리 교회의 분위기를 한 층 돌아내는 인근의 강변공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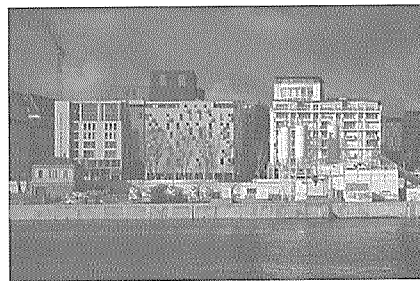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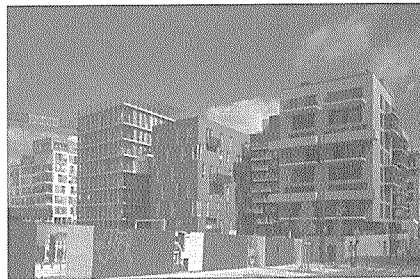
런던-리처드 로저스의 몬테비트로 주택재개발 프로젝트(1994-2000)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부지계획은 연속되는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이것들은 부지 동측에 20층 규모의 블록에서 시작하여 서측으로 가면서 사선을 만들어 가며 그 높이를 낮춰 가장 서측의 블록에서는 4층 높이까지 낮아진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구성된 타워가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며 몬테비트로에 강렬한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이 계획의 서측 파사드에는 매끈한 유리를 사용하여 템즈강이나 첼시의 장대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층부에서는 런던 서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 90~230m²의 면적을 갖는 103개의 주호 모두 템즈강을 전망하는 넓은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밖으로 노출되는 후면의 입면에는 테라코타 패널이 마감재로 사용되어 육중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도로에 면한 저층 블록에는 헬스클럽이나 레저클럽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파리-파리 좌안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아파트먼트

'세느강 좌안(左岸)지구(Paris Rive Gauche)'의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오스만에 의한 도시개조 이래 처음이다. 세느강 좌안지구는 한편을 세-



파리 좌안지구의 아파트먼트

강에 접하고 다른 한편은 슈발레레거리까지 이어지는 지역 일대이다. 정확히는 오스텔리츠 역에서 블바르 마세나까지의 범위이다. 새로운 근린지구가 일상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제시설과 함께 현재 이 곳의 중심적 건축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주변이기도 하다. 연일 새로운 주택지, 사무소, 문화활동시설, 점포, 서비스시설, 학교, 대학 그리고 공공의 문화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도시를 최대한 즐기고 생활하며, 일하는 장으로 만드는 시설들이 차례차례 들어서도 있는 것이다.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파리 13구에 해당하는 이 일대에는 오래된 공장들이 모여 있었으며, 지금과 같은 활력과 투자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1991년 1개의 도시개발지구(ZAC)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SEMAPA(파리 정비경제혼합기업체)가 주도하는 파리좌안개발 계획의 착수가 가능해졌다. 지금으로선 어느 정도 이 지구가 변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이다. 현재 15,000명의 거주자와 30,000명의 학생과 교원 그리고 60,000명의 근로자가 이곳에서 활동한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은 '세느강 좌안(左岸)지구' 내의 주택지인 마세나(Massena)지구의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포잠박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곳의 수동의 아파트먼트가 각기 다른 건축사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레낙 과 곤잘레스의 이틀리에가 설계한 A동, 장 필립 파르가드에 의한 C동, 가엘 뻬노에 의한 D동, 까뜨린느 뤼레의 E동, 앙뜨완느 스티코의 F동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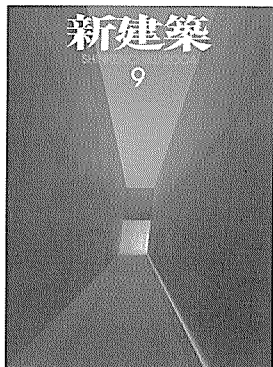
1994년 포잠박은 파리 좌안(左岸)의 마세나지구의 입찰에 초대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 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이 특수한 근린지구와 파리의 연결관계가 확보되도록 계획의 배열과 적절한 규모를 모색하였다. 그는 2개의 대립하는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개개의 솔리드한 형태의 자유로운 취급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공공간이라는 비워진 공간에 대한 엄격한 취급이다. 작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근린지구

를 이중(異種)의 건축군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법이 나타났다. 그가 여기서 목표로 했던 것은 도시를 변화나 다양성 등 미지의 장래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도시의 형태는 건물이나 가로 배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상을 어떻게 분절해 갈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것은 블록의 형태를 어떻게 정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건물을 집적하거나 혹은 분리해 가는 방법으로서 해석한 것이다. '오픈 블록'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는 근대도시에 있어서 공공 공간의 개념을 건물을 집적해 가는 행위를 통해 재검토해가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즉 여기서 근대건축이 투쟁해 온 자율성을 지닌 건축(형태)라는 제재(題材)에 의해 구축되어 세워진 가로라는 테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장식을 붙이는 것도, 경계벽을 만드는 것도 거부하였다. 이 새로운 블록은 굴삭되고, 일정한 규율을 따라 보이드와 솔리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생각지 못했던 형태로 완성된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이며, 그가 다른 건축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분야인 것이다.

신건축

2004년 9월호

이번 호에 서는 표지를 장식한 안도 타다오의 지중(地中)미술관을 비롯하여 스즈키 료지의 '金刀比羅宮 프로젝트', 마이크로 도시 ARIA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키타가와라 아츠시 설계의 '빌라 에스테리오와 산타리아 학교', SUS가 시



공한 알루미늄 조립식 건물로 야마모토 리켄 설계공방이 설계한 에콤스(ECOMS)하우스와 에콤스팩토리, 쿠로야나기 아키오가 설계한 '바다의 집'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권두 논문으로 後藤治의 일본 대도시에서의 근대건축 보존과 도시 재생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권두논문 : 보존과 도시재생-움직이기 시작한 도시지역의 근현대 건축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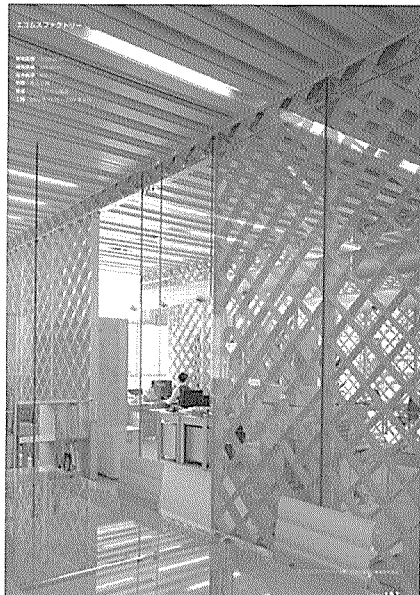
신건축지에서는 권두 에세이는 거의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으나 권두 논문은 에세이만큼 접하기는 힘들다. 이번 호에는 일본의 공학원대학교 교수인 後藤治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이라기보다는 논설에 가까우나 최근 국내에서도 등록 문화재 제도에 의해 근대 건축물들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과 도시의 재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의 글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後藤治의 글은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 건축물 혹은 도시경관의 보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이 이루어진 것은 문화재보존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며

1897년 고사사(古社寺)보존법에 의한 사사(社寺) 건축(신사와 사원 건축)의 보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29년에는 국보보존법에 의해 성곽 등의 보존이 개시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민가(民家)에 대한 보존이,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의 시기에는 메이자와 다이쇼 시대의 양풍(洋風, 서양풍)건축에 대한 보존에 진전을 보았다. 1975년에는 문화재보존법의 개정에 의해 전통적건축물보존지구제도가 도입되어 집락과 도시구역에 대한 보존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6월 경관법의 공포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현재 일본에서 근대 건축물의 보존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시지역에서 보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근대건축의 특성상 사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가는 보존운동의 필요성이다. 현재 일본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상태를 보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건물 혹은 지구의 수가 현격히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구의 역사적 대도시에서 시가지의 재개발을 논할 때에는 역사적 구시가지의 보존을 전제로 한 재개발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도시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의 연한이 오래된 것만을 보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대도시에 남아있는 근대 유산들이 보존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대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개인이나 민간기업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세제 감면 등 보존에 대한 지원 없이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 개개의 건물을 단위로 한 보존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보존으로 그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다. 도시에 남겨진 역사적 경관과 컨텍스트의 보존 없이 건물 하나만을 남겨 보존하는 것은 그



에콤스팩토리

의미가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존의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몇몇 전문가 뿐만 아니라 근대 건축물 및 도시경관의 보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안도 타다오의 지중(地中)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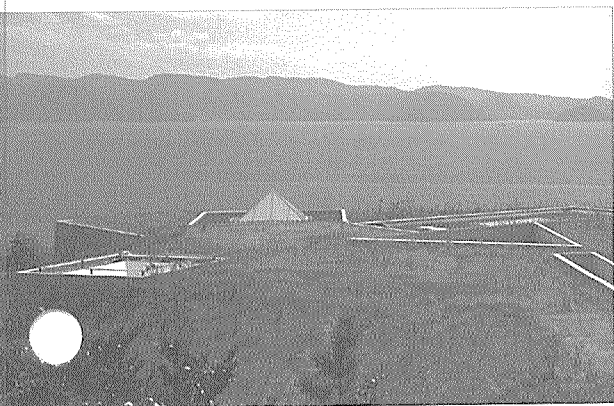
자연에 매설(埋設)되는 건축 - 直島에서 이루어진 안도 타다오의 17년간 프로젝트 궤적

지중(地中)미술관은 瀬戸内海에 떠있는 작은 섬의 하나인 直島에 만들어진 지중(地中)미술관이다. 인상파 화가인 끌로드 모네와 현대미술 작가인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 이렇게 3 작가들의 작품이 영구 전시되는 곳이다.

안도타다오와 直島와의 만남은 1987년, 베넷세 코퍼레이션의 福武總一郎씨가 '瀬戸内海에 있는 直島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섬으로 만들고 싶다'라며 안도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몇 일 후 처음으로 直島를 그가 방문했을 때에는 교통의 불편함과 섬의 산업을 지탱해 온 금속정제산업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福武씨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고, 결국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다. 1988년 '시사이드 파크'의 감수에서 1992년 '베넷세 하우스', 1995년의 '베넷세하우스의 여백스', 그리고 1999년 '집(家)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17

년에 걸쳐 건축사로서 다양한 형태로 섬의 개발 구상에 관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수했던 것은 자연의 지형, 풍경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을 지형에 맞추어 땅 속으로 가라앉힌다는 아이디어이다. 생물이 증식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에 매설되는 건축'이라는 이미지는 한층 확신을 얻어 갔다고 생각된다. 지중미술관은 이러한 直島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문화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하나의 이정표로서 의미를 지니며 계획되었다.

(번역 / 강상훈)



지중(地中)미술관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6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3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9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8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